

월요광장

손가락에 달린 콘텐츠의 미래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바쁘게 지내노라면 좀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도 쉽지 않다. 도심 속 뻘뻘한 건물에 눈길이나 가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하지만 가끔 서울 광화문 부근을 지날 때면 교보생명 빌딩에 걸려 있는 대형 글판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광주에 있는 같은 회사의 건물에도 걸려 있는데, 계절마다 새로운 글로 옷을 갈아입는 광화문 글판이 벌써 25년이 되었다고 한다. 최근 서울 출장길에 광화문에 들렀다가 확인한 것에는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란 시구(詩句)가 걸려 있었다. 짧은 글이지만 깊은 울림을 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천천히 음미하며 글을 읽다 보면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든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란 말은 이제 수 정되어야 할 것 같다. 통계에 의하면 가을은 책 판매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도 저조하다. 이유는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기후 변화로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책보다는 맑은 하늘과 고운 색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을 구경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일 것이다. 독서량은 가을에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점점 책과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1인당 연간 독서량이 9.2권, 월 0.76권으로 한 달에 책 한 권을 채 못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위의 보급률을 자랑하는 스마트폰이 독서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유비쿼터스한 콘텐츠 환경이 형성되면서 수시로 이용 가능한 간결하고 짧은 콘텐츠 소비가 증가했다. 대신 긴 호흡이 필요한 독서가 상대적으로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판시장에서도 장편 소설보다 짧은 소설이 등장해 인기를 얻어 가고 있다. 스마트폰이 일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출퇴근길의 풍경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거나 책을 꺼내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나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귀한 풍경이 되었다. 모두가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의 액정만을 보고 있어 '수그리족'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초 '2015 콘텐츠산업 10대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첫째 트렌드가 바로 '스마트 핑거 콘텐츠'의 유행이었다.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스낵컬처'(snack culture) 시대에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는 최소한의 행위로 즐거움을 소비하는 콘텐츠 소비행태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또 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시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소비를 하고, 10분 내외의 짧은 영화나 웹드라마, 그리고 웹툰이 더 큰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한다.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도 짧게 잘라 높은 클릭 영상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즐기는 게 보편화될 것이다. 스마트 핑거 콘텐츠 소비가 늘면서 관련 콘텐츠의 업그레이드와 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단순하게 보는 것을 넘어

오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 웹툰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화면이 움직이고 소리도 나는 웹툰과 춤인·움아웃이 가능한 '스마트툰'도 등장을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읽는 웹소설도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웹소설을 올린 작가 수는 6만 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책을 읽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웹소설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직접 책을 쓰는 작가들까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선행은 우리의 반도체와 휴대폰 등 정보통신 산업이 세계적 성공을 거둔 배경에 삼재한 손놀림을 긍정하게 만든 것가라 사용 문화라고 말한 바 있다. 그 것가라를 사용하는 게 바로 손가락이다. 스마트 핑거 콘텐츠 시대의 트렌드를 잘 읽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면 우리가 IT에 이어 콘텐츠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성공을 일궈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책을 안 보고 스마트폰만 본다거나 너무 나무라지 말자. 책 읽기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손가락에도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법조칼럼

홀로 눈뜨는 자의 외로움



송석봉 광주지방법원 판사

길지 않은 법관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일 중 하나는 단독판사로서 재판을 처음 진행했던 경험이다. 법정에서 처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판결을 써본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더 이상 함께 걸어갈 이 없이 혼자서는 사실은 기대감을 넘어서 두려움을 주었다. '긴장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얘기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면 어찌나'하는 두려움은 법정으로 향하는 내내 다리를 무겁게 했다. 하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고, 내 앞에 선 채 자신의 사연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동안 내 어깨에 얹어진 것은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과 외로움이었다. 잘못을 저질러서 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건, 법정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나이·등록기준지·주거와 직업 외에도 많은 속사정을 털어놓는다. 내 억울함이나 분함을 해결해 줄 이는 당사뿐이라는 듯,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 그와 뒤섞여 자신이 살아온 그 'long & sad story'를 토해낸다. 물론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알고 지내는 동네 이웃이 아니라 커다랗고 높다란 의자에 앉아 있는 재판장기 때문일 것이고, 그러한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였을 터. 하지만, 당시 나는 당사자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지도 모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그것도 최선을 다해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누구와의 합의도 없이 그 중대한 결정을 혼자 해내야 한다는 외로움에 압도되어 재판, 나아가 이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려는 시도는 못해 본 것 같다. 무대에 처음 오르 퐁배우처럼, 어떻게 내 배역을 제대로 해낼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런 경험 때문인지, 얼마 전 읽은 주재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내가 견고 있는 길과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은유와 질타처럼 다가왔다.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눈이 멀게 되고 그것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간 후 짐승으로 전락해 가는 모습을, 혼자 눈멀지 않은 의사 아내의 시선을 통해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은 욕망에 눈멀어 있는 인간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이 소설에서, 내게 가장 와 닿았던 것은 의사 아내가 느꼈을 외로움이었다. 의사 아내가 가장 선한 인간도 가장 강한 인간도 아니었으면 다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홀로 눈을 뜨게, 점점 드러나는 인간의 어두운 모습들을 목도해야 했다. 때로 그녀는 홀로 눈뜨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다른 이들은 보지 않아도 되는 인간의 참혹한 몰락을 지켜보면서 그 충격과 안타까움을 누누이도 나눌 수 없었고, 자신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감은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문득 이런 의문이 생겨났다. 법정에 오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 혹시 갑작스레 눈멀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어딘가로 끌려온 느낌은 아닐까? 자신이 일을 벌인 쪽이건 아니면 억울한 쪽이건 관계없이,

모르는 곳에 홀로 서서, 때로는 원통함이나 수치심을 때로는 분노를 억누른 채 자신의 인생을 낯선 사람에게 뒤집어 내보이며, 그 사람이 원래의 정감한 자신의 모습을 알아봐 줄 눈빛을 기대하는 절박한 마음은 아닐까? 이런 정답 같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재판을 하는 일은 어쩌면 사라마구 소설의 의사 아내가 한 것처럼, 오물을 뒤집어쓴 사람들의 손을 이끌어 씻어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때로 짐승의 것과도 같은 그들의 행동 뒤면에 사심은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할 선한 본성이 숨겨져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일인지도 모른다. 잘나서도 마음이 약해서도 아닌, 단지 있어 있는 의자 때문에 인간이 가진 어두운 면을 바라보도록 결정된 나 같은 사람들의 의무는, 그 의자에 원래부터 붙어 있는 외로움과 책임감의 무게를 진지하게 견뎌내며, 자신이 진실로 눈을 뜬 채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유로, 눈이 멀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고

국제대회 스포츠시설, 시민과 함께 호흡하길



임효택 광주수영연맹 전무이사

광주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저비용 고효율의 전략으로 치러냈다. 22개 종목 중 신설 체육시설을 갖춘 곳은 남부대 수영장,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양궁장, 테니스장 4개 뿐으로, 인천아시아인 게임에 비해 시설 비용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주목받았다. 이 대회는 스포츠 이벤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국제대회를 마무리했으나, 시설물들의 사후 관리 문제는 더욱 중차대한 문제로 남는다.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물

들의 지속적 관리와 활용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시체육회와 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궁장과 테니스장은 시민들의 사람 속에 동호인들의 사용이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남부대 수영장은 협의의 진행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조적인 협의를 이끌어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로, 개방이 이뤄진다면 시민의 혈세로 신축된 시설이 시민들과 수영 동호회인들의 관심 속에 제 몫을 해낼 것이라 기대한다. 국제대회 이후 스포츠시설 인프라에 대한 활용방안이 지자체마다 고민거리다. 운영비와 시설유지비용,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면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독립적 자립을 원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대 시설을 이용해 국제교류와 친선도모, 대회유치, 전

지훈련 등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시설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기적인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지자체의 스포츠이벤트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전략과, 지자체와 지역민을 연결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국내 산업의 발달로 인한 여가 시간의 증가로 대중들의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욕구가 날로 신장되어 가고 있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에 대한 지속적인 호감과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의 기본 요소로는 시설과 프로그램, 지도자가 있는데, 이중 시설을 일차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체육 활동 참여자에게 복지 측면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시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다. 오늘날의 생활체육 시설 개발이 원만하게 해결돼 시민들의 염원이 이뤄질지 기대한다.

은 욕구를 지니고 있다. 상업체육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감이 큰 시민들에게 공공체육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 혜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의욕적인 체육 활동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시민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백서·2011년판)에 따르면, 정책적 노력과 주5일 근무제에 힘입어 2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미디어 프로그램 등도, 신체 활동의 핵심적 영역인 생활체육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고돼 있다. 국제대회 스포츠 이벤트가 끝난 뒤 체육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개방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지속성 있는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시민들이 기대수명 보다 건강한 체육생활로 장수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벗어나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개발이 원만하게 해결돼 시민들의 염원이 이뤄질지 기대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인구 줄어드는데 ‘콩나물 교실’ 웬 말인가

광주 신도심의 과밀학급 실태가 심각하다.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교원을 줄이는 정부 방침이 획일적으로 적용된 데 따른 부작용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파트가 밀집한 광주 수완과 신창지구 초등학교 일부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기준(26명)을 크게 넘어 30명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의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면밀한 대책 부족으로 되려 '콩나물 교실'의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다. 광주 지역 초·중·고교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중학교의 경우 교사 한 사람이 맡는 학생은 18.1명으로, 경기도(19.3명), 인천(18.5명)을 제외하면 전국 꼴찌다. 학급당 숫자(30.1명)도 13위여서 학생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교육은 어려운 형편이다. 고등학교도 교사 1인당 학생이 16.4명으로 전국 16위, 학급당 33.8명으로 전국 최하위인 17위다. 현장에서는 애초에 하소연하지만 정

부는 막무가내다. 초등의 경우 광주 전체를 따져 내면 교사 165명을 늘려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정부는 현정원 4859명보다 되려 13명을 줄이라는 입장이라서 해법 찾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 신형 주택지구 특성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채 예산 학급 수를 동일 기준으로 산출한 광주시교육청의 꼼꼼하지 못한 행정도 한 원인이자적이다. 한 번 세워진 원칙이라며 똑같은 잣대만 들이대는 정부나, 지역 실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교육청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불필요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큰 흐름은 지키되 환경 변화로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난 곳은 더 많은 교실과 교사가 있어야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당국의 보다 유연한 사고를 촉구한다.

결혼 박람회 찾은 예비부부 피해 많다니

본격적인 결혼의 계절을 맞아 여기저기서 웨딩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결혼 박람회에서 총동맹으로 '스·드·메'와 혼수 등이 포함된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예비부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의 첫글자를 딴 신조어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94건(41.0%)이 결혼 박람회에서의 계약 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피해 내용별로 보면 '계약 해제 거절'이 53건(56.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도 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21.3%)을 차지했다. 77.7%가 계약 해제 관련 피해인 것이다. 그 외 '사진 촬영 관련 불

만족' 7건(7.4%),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요구 등 '드레스 관련 불만족' 3건(3.2%) 등이었다. 이처럼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최근 결혼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결혼 박람회를 찾는 예비부부들이 사은품 제공·할인 혜택 등에 현혹돼 달력 총동맹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은품 제공·가격 할인 등이 이번 박람회에만 적용된다고 유혹하며 당일 계약을 유도했으니 이후 후시도 박람회를 다시 연 사례도 있었다. 결국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싸다고 달력 계약했다가는 추가 비용이 생각보다 많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전에 업체·상품 내용·환불 조건 등을 비롯해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총동맹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다.

無等鼓

남성은 나이가 들면 대부분 발기와 탈모 문제로 한계를 느끼게 된다. 1998년 고개 숙인 남성들을 일제히 기립(起立)시킨 문명의 이기(?)가 탄생한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는 남성들의 밤을 바꿔 놓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아그라·시알리스·자이데나 등 국내외 3개 제품의 판매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시알리스가 최근 특허 만료되면서 오리지널 약에 비해 60~70% 정도 저렴한 제네릭 제품이 (복제약) 제품이 무려 150개나 쏟아져 나왔다. 여기에 몇몇 제품의 경우, 매일 소량 복용 시 전립선비대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제품을 구하려는 이들이 줄을 서고 있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발기부전 치료제가 애초 고개 숙인 남성을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흥미롭다. 우연한 기회에 탄생한 비아그라는 심지어 개발 목적에 어긋난 부작용을 물적 이기도 하다. 원래 심장 혈류개선을 위해 개발한 심장약이던 것이다. 하지만 개발 초기, 심근경색과 협심

증, 저혈압 등의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 리콜이 시작됐다. 그러나 상당수 환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았다. 심장이 아닌 다른 부위에 왕창 도움이 됐던 탓이다. 결국 비아그라는 심장약에서 발기약으로 환골탈태하게 된다. 탈모치료제 탄생도 똑같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들의 신체에 발모 효과가 나타난 것이 계기가 됐다. 심혈관질환의 권위자인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최근 혈전이 생기지 않는 심장혈관 스텐트 제 나왔다. 여기에 몇몇 제품의 경우, 연구 중 독사의 정제된 독이 혈전 생성을 막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뒤, 독으로 스텐트를 코팅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 교수는 이 스텐트의 이름을 '타이거'라 지었다. 타이거즈가 광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야구팀이었던 타이거 스텐트가 환자들의 심장을 지켜 주길 바라는 염원에서란다. 우연히 개발된 것은 우연 연구자의 간절한 소망과 탐방술의 산물일 것이다. /채희중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 고 매 케 임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